

교구 구역 조정 및 인력관리 방안

-미래의 총부와 교구 그리고 지구-

성명증 위원: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 말머리
2.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
3. 인력관리의 구역 재배치(대 교구형태)
4. 교구의 역할
5. 인력의 특성화 내지 전문화
6. 고려 사항

1. 말머리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제도나 의식의 잔재들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교단의 체제도 이제는 이 시대에 그리고 다가 올 미래에 걸 맞도록 정비하고 변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헌상에 나타나 있는 중앙총부의 위상과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중앙총부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역할을 세워 나가야 할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

1) 교헌 제28조에 의하면 교단을 總管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두고 거기에는 宗法師와 首位團會, 中央教義會, 教政院, 監察院을 둔다고 하여 명실공히 교단의심장부로서의 역할이 명시 되어 있다. 한편 대산종사님은 익산 중앙총부를대 성지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 하여 주셨다.

2) 시대적 요청에 의해 과연 교단 행정의 중심역할과 성지로서의 역할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어디에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중앙총부의 위상을 정립해 가야할지 마땅히 공론화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3) 이에 따라 본 논의는 교단 체제를 변혁시켜 새롭게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은 종법사와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하여 교단을 법통을 이어가고 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진작시켜 마음의 고향, 신앙 수행의 도량, 참배, 기도도량 등으로 정립해가며 그 외의 행정적 업무 일체를 교구로 이양하여 교구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교화의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3. 인력관리의 구역 재배치(대 교구형태)

1) 현 교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제1안)

구역	현교구	교당	기관	출가교역자	출석수	인구수
서울	서울	65	10	145	4,700	990만
부산	부산,경남	96	10	158	4,000	770만
대구	대구경북	35	5	61	1,300	530만
중부	경인,강원	53	3	85	2,300	1,300만
대전	대전충남,충북	47	5	77	1,500	480만
광주	광주전남,영광,제주	78	11	134	3,500	390만
전북	전북	89	17	162	5,200	150만
총부직할	중앙	39	5	77	3,700	50만

2) 3대 권역으로 조정한다.(제2안)

- * 중부권(서울, 경인, 강원, 대전충남, 충북교구),
- * 서부권(광주전남, 영광, 전북, 중앙, 제주교구)
- * 동부권(부산, 경남, 대구경북교구)

3) 위와같이 전 교역자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인사를 배치 조정하고 가능하다면 장차 인력수급도 각 권역별로 해 나가도록 정비해 가야하며 인사 순환도 각 권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지역에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교구의 역할

1) 중앙총부의 업무중 이관키 어려운 고유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남겨두고 기타 모든 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이관을 받아 교구가 행정과 교화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현 교구 규정도 이제도에 부응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2) 업무(현 중앙총부 대행)

- 가) 각종 행정업무 총괄 역할
- 나) 대 교구내 인사 관리 및 기관관리
- 다) 교화 중심의 지원업무 전반

5. 인력의 특성화 내지 전문화

1) 출가교역자의 성향과 특기와 적성, 역량따라 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특수교화장, 특성화교화장(청소년, 문화등)을 고려하여 전문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이제는 개 교당 중심의 교화를 벗어나 지역또는 지구 단위의 교화로의 체제와 의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지역)단위 연계교화, 연대교화 등이 모색되고 강화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입체적인 교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6. 고려 사항

- 1) 교당의 구조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 2) 교헌 및 법규 정비 (체제의 변혁)